



원시의 삶에 비친 만다라 세계

사탕수수 바람속으로

(기원정사 길목의 여정)

북타의 다비장(라브하르 스투파)에서 한국의 절, 대한사로 가는 길.

절 입구에 세운 입간판은 하나를 네 개로 분할했는데 태극기와 대한사(절체), 인도기와 불기를 하나로 엮은 것이 인상적이며, 특별한 디자인 감각이다.

이역만리 땅에서 1991년에 터를 잡았다는 절은 한 스님(性觀)의 헌신, 한 생을 바치려 하는 열정으로 가꾸어지고 있었다. 마당에는 비지땀을 흘리며 물을 깨는 현지인들. 먼 옛날 인도에서 동해로 흘러 온 불교가 이젠 그 흐름을 거슬러 한국인의 의지에 인도인이 동참하는 역사, 다시 만개할 세계일화(世界一花)의 꿈!

일행들이 한 동안 불사에 동참하는 사이 절 주변을 둘러보자 저 멀리 담장너머로 흰 연기가 피어오른다. 숨차게 달려가 살펴본 즉 사탕수수 줄기를 끌어 설장을 만드는 광경이 아닌가.

대나무처럼 끈끈한 줄기들을 기계 속에 넣어 잘게 분쇄하고 그것을 우물같이 둥근 거대한 틀속에다 불과 함께 풀고는 불을 때 쪄고 있는 장면이다. 수공으로 설장을 만드는 풍광은 그야말로 인도의 체취로 몽글한데 멀리서 보았던 연기는 사탕수수를 고는, 구름 바다 같은 수증기였다.



작업-설장만들기 (92.5 x 42.5cm).



사탕수수 (32.5 x 49cm).

사탕수수는 벼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수수와 비슷하며 회백색 꽃을 피운다. 줄기에서 짙은 줄을 고아 설장을 만드는데 인도 갠지스강이 원산지라고 알려져 있고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식물이다. 사탕제초는 물론 이거니와 주스로도 마시는 인도 농경지역의 생계수단 이요, 생필품인 것이다.

이제 기원정사(祇園精舍)를 향해 길을 떠나니 사탕수수의 바람은 어느새 사방에서 불려온다.

안개와 먼지, 쇠풀과 목가, 만다라의 삶과 예술, 성자와 걸인, 경적과 짐뿔, 원시의 풍경과 삶이 묻어나는, 시간을 잃은 신의 나라에 더하여 '사탕수수의 나라'로 부르고 싶은 인도.

광활한 대지에 끝간데없이 펼쳐지는 초원은 어김없이 사탕수수의 물결로 하늘 향해 손짓하는 수직과 수평의 상응(相應). 바람이 어지러이 휘날리는 만류 더 웃자라는 진초록의 향연, 실로 거침없는 대지의 노래.

앞을 보니 또 사탕수수의 진군. 트럭 위로 쌓을 수 있는 데까지 높인 사탕수수 더미는 예전 데칸고원을 지르며 마주했던 우마차의 장엄과는 또 다른 감동이다. 백미러가 무용지불임은 당연하고 저 위태로운 덩치와 키로써 질주하는 사탕수수의 진용(陣容)을 대체 무엇으로 막으랴.

군데군데 마을마다 드러나는 사탕수수 기계는 집집마다 들불 같고, 길 주변 호수에 비친 풍광은 길 따라 대지와 하늘을 바꾸어간다. 거꾸로 보는 세상, 인식의 일탈.

염소와 양들이 풀을 뜯고 쇠풀으로 운동 외벽을 치장한 듯한 그 집들이 즐비 한데 우람한 고목에 빈다며처럼 붙어놓은 쇠풀. 그 나무 뒤에 숨어 손을 흔드는 붉은 사리의 소녀.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새까만 아이들이 열지어 가다 손을 흔들며 주면 마치 무슨 환

성을 지르듯 반기며 눈빛이 반짝인다. 어느 생인가 한변쯤은 마주 했을 인연이려나.

이제 저무는 언덕 햇살 속에 쇠풀을 거두는 아낙들. 그 쇠풀을 소쿠리에 이고 돌길로 걸어오는 소녀들. 어릴 때부터 쇠풀을 분리로 여기지 않고 생활자원으로 인식하여 살아온 저들에게 나그네는 마냥 이방인일 뿐이다. 긴 막대를 이용하여 숲 속에서 망고를 따는 늙은이 주변에 검은 소. 한 쌍의 왜가리가 그 소 등에 올라타 발리하며 나래 펴는 장면이려나...

한국·인도인이 하나된 대한사 불사 현장 거침없는 대지에 펼쳐진 진초록의 향연

인종과 국경, 그 장벽을 넘어 인간본연의 가슴으로 흘러들고 나는 반가움과 그리움 앞에서 나그네는 절망한다. 차마 붓끝으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공허감에서 부르고 싶은 이,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 1806). 그가 만약 이곳을 지났다면 어찌 했을까.

촌철살인(寸鐵殺人), 포복절도(腹腹絶倒), 아포리즘(aphorism)의 달인인 연암의 『열하일기(熱河日記)』는 여행의 기록이지만, 거기에 담긴 것은 이질적인 대상들과의 '진한' 접촉이고,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발견의 현상이며, 새로운 담론이 펼쳐지는 경이의 장이다. 주체도 대상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강렬한 흐름만이 법랑하는 풍아 혹은 평원 때문 더할 나위 없이 경쾌한가 하면, 때론 장중하고, 또 때론 한없이 애수에 젖어들게 하는, 마주치는 것마다 강렬한 악센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공간적 편력, 그것이

『열하일기』다. 『고미숙』 그는 또 '비슷한 것은 가짜다'라고 하였거니와 내 어찌 코앞의 생(生)을 놓고 여행이나 풍문에 bait에 그려갈 수 있을까. 차라리 무지의 소치를 범할지언정 그림자 흉내는 거두어야 하리. 따라서 연암은 내게 절망과 함께 용기마저 선사한다. 인도의 생생한 기류 속에 자신을 던지라고, 그냥 너의 붓을 들고.

잠시 지나온 풍광이 삼년 속에서 아릿한데 이번엔 코끼리의 행차다. 가로수를 정비하는 용역을 사람이 아닌 코끼리에게 맡긴 셈인가. 코를 높이 들어 빠져나온 나뭇가지를 코로 감아 자르는 일이 너무도 신묘하다. 드물게 보는 장면이라 차를 내려 다가가니 코끼리를 탄 주인이 서커스 흥내를 낸다. 루피를 의식한 탓에. 그 광경이 가상하여 루피를 내밀자 코끼리가 날름 코로 받아 말아 올려서는 주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않는다. 모두들 영물이라고 찬탄하며 변질의 세상에서 모처럼 주인을 위해 사는 '충직'을 떠올려야 했다.

서서히 찾아드는 어둠. 사탕수수도 칼바람으로 날이 서 가는 시간. 아기를 앞가슴에 품고 짐을 머리에 인 아낙이 귀로를 재촉하고 있다. 그 어둠 속에서 눈썰매를 끌 듯 형이 등에 줄을 때 동생을 태우고 들길을 가는 정다운 모습이 또 아스푸레 하다.

마침내 종일을 달려온 여정의 끝, 숙소에 이르는 시간. 복작거리는 간이 시장은 어느새 불빛으로 출렁이는데 과일을 사러 둘러보니 사탕수수 줄을 짜서 파는 상인들이 눈에 띈다. 인도의 사탕수수는 사방천지, 밤낮으로 그 바람이 잦다. lns1957@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北 韓 産
金剛念珠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건강을

금강염주를 방이나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광공전, 음이온등이 발생되어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무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며 도시의 좋지 않은 공기 환경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들의 건강을 도와드립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 있는 세계유일의 금강염주입니다.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힘이 발생하는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일일마다 하면 부처님 가르침 고시준비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분이 뜻을 이룰수 있는 신비의 금강염주입니다.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 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회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호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약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 12단주와 108단주 1set 가격 195,000원
* 농협 743-02-563237 (정혜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문 상담을 원하시면 우체국 통신판매로 전국 어디나 점안식용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영 B/D 406호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 ~ 지니컴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위드스에서는 세계최초 음성 인식 기술을 응용한 영어로 말하는 대화하는 로봇컴을 개발 시판하여 화제가 되고 있으며 그 인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불교문화와 보고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으며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사람과 스님은 물론 학생 및 입문자를 보는 사람에게는 필수어입니다. 스님께서 영어를 배우고자 해도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영어를 배우기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학원에서는 직접 말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입니다. 영어 학습법으로 첫째 '청취력' 둘째 '따라하기' 셋째 '대화하기' 학습입니다. 그러나 사람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는 거의 듣기 위주 혹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주의 CD, 테이프 등 모든 것을 동원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서 반복 공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영어로봇 뉴지니컴의 보급으로 1:1생방송 대화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어에 기초가 전혀 없어도 뉴지니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칩만 바꾸면 누구라도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으며 화면에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세히 보여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뉴지니컴은 명령에 따라 학습하며 1단계(Listening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로봇이 사람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지니컴

model리스-닝 모드는 귀를 쫓기 과정으로 영어를 많이 들어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하여 '청취력'이 향상되며 2단계를 한문장씩 듣고 따라하며 스님께서 발음이 틀리고 화법이 틀리면 뉴지니컴은 말을 수정해주며 잘하면 엑셀러트하며 칭찬합니다. 3단계(Dialogue mode)다이얼-로그는 스님께서 뉴지니컴과 한문장씩 1:1로 자신있게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기타 영어 학습 기능모드가 다양하게 많은 뉴지니컴은 영어선생이자 미국인 친구와 같다.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스님께서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하나만 있었던 외국어학습을 방불하게 하는 생생한 영어학습을 실현할 수 있으며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외국인 포교의 세상이 열립니다. 신중하면 전국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분 할도 할 수 있습니다.

LCD형 영어로봇 '지니컴'

학습 문의 전화 (02)3210-3178

몸체 전면에 설치된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 / 한글 자막을 자세히 보여주어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